

## 문헌자료를 통해 본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

이 영 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Post-Doc. 연구원)

조 재 순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한국인들의 러시아 이주는 18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인들이 러시아에서 생활해 온 실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러시아 거주 한인들은 오랫동안 한국과의 접촉이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면에서 우리의 전통 풍속을 지키고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와 주생활에 대한 탐색은 그들의 생활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해줄 뿐 아니라 한인들의 정체성의 확립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평가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지 답사에 앞서 다양한 문헌정보에 나타난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기초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의 고찰과 신문·잡지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를 이주 초기부터 연해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연해주 현지에서 발행한 각종 신문과 잡지를 분석하여 당시의 러시아 한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동시에 현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1860년부터 이주가 시작된 러시아 거주한인들의 주거에 관한 연구의 지역적인 범위는 크게 연해주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초기 주거는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양편에서 모두 토굴이나 판잣집 그리고 초막 등의 임시적인 주거였으며 점차로 안정되면서 우리나라 식의 주택을 건설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러시아 식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온돌을 설치하여 우리 본래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운 기후에 대응하였다. 이주 초기의 마을 형성이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과 유사함을 보인다거나 우리나라의 주택평면과 유사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한인들이 그들의 사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였던 점들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로 간주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풍속과 생활양식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과적으로 러시아 당국이 한인들을 경계하고 또한 차별을 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구 소련이 와해된 이후 러시아 거주 한인들은 전통의 고수와 현실의 적응이라는 갈림길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앞으로 행할 현지 탐방과 관찰을 통한 심층연구의 지원을 위하여 행한 본 연구는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의 제고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학문적인 면에서 기초적인 연구로서의 성과를 가진다.